

# 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 李鍾容  
編輯人 張玉煥  
印刷人 田根澤  
編輯局長 田根澤

發行所  
社 韓國生藥協會  
社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大山빌딩 3층)  
☎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 지면안내

- (르반) 연천·철원 수해 현장을 가다 : 3면
- 약초 수확 요령 : 4면
- 황기대추제 이모저모 : 5면
- 가을철에 좋은 보약 : 8면

# 정부 수해복구 지원

## ‘눈가리고 아웅’

### 연천지역 생약농가 재기 ‘찬물’



◇지역특성을 살린 생약행사가 곳곳에서 풍성하다.

헤타당 2백만원 자비 들여 복구 불구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 보상에 허탈

정부가 추진중인 수해 복구 지원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형식적인 복구 지원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형식적인 복구 지원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형식적인 복구 지원이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UR 대응 차별로 권장되고 있는 약용작물의 경우 이렇다할 복구기준조차 없어 생약농가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 7월 쏟아진 집중우수로 강원 경기북부 일원의 약초재배농가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연천에서만 1천50ha(35만평)가 유실, 매몰되거나 침수되는 등 14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으며 소출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수해후 2달이 지나도록 복구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약초밭은 토사를

뒤집어 쓴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수확기를 앞두고 안타까움을 더한다. 이번 수해로 4만여평 황기밭이 매몰돼 2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연천

군 백학면 백령리 읍내(56)는 약용작물은 복구비 지원분에도 아예 없어서 아무런 지원을 받을수 없고 자부담으로 복구비를 끌내고 무배추를 대파한 경우에만 해서 실제 들어간 복구비(1ha당 2백만원)에는 턱없이 못미친다. 1ha당 62만원 정도의 대파대를 받을수 있을 뿐이라고 허탈해했다. <관련기사 3면>

# 생약추제에 가을이 풍성

## 정신황기대추제를 비롯 전국서 개최

올 가을 지역특성을 살린 생약재 행사가 곳곳에서 풍성하다. 10월 2, 3일 제1회 정신 황기추제가 군내 생약종합유통센터에서 열렸다.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황기추제는 황기아가씨 선발대회를 비롯 축선에서 황기요리경연대회 및 시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행사장에는 또 5, 6년근 대황

가 선보였다.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진다 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날 20~23일 개최된 제16회 금산인삼제. 인삼추제는 금산인삼의 유래를 일러기 위한 산신제, 개산제, 인삼요리 추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오는 11, 12일 이틀간 황제에서 열리는 태평문화제에서도 처음으로 황성대아가씨 선발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 한약규격품 ‘눈속임’ 많다

## 소시모발표 조사제품중 66.7%나 함량미달

한약재의 가격안정 및 위생적 유통관리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해 온 「한약규격품 유통제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해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최근 경동시장과 종로6가 등에서 팔리는 규격품 한약 30개 품목, 9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실제량을 표시량보다 적은 제품이 66.7%(60개)나 됐다. 가장 적은 양은 법적으로 허용량(10%)보다도 자라는 제품도 16개(17.8%)나 됐다. 특히 삼포제의 「반하」는 실제량이 표시량인 5백g 보다 32.7g, 양제하의 「행인」은 19.1g이나 모자랐다. 또 같은 한약재를 비규격품으로 팔 때는 6백g, 규격포장에 담아 팔 때는 5백g을 넣어 같은 값을 받음으로써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약재는 우리 손으로 지켜가야 합니다”

생약재는 오천년 역사 속에서 조상대대로 선조들의 건강을 지켜온 우리의 소중한 전통의약입니다. 가격경쟁이 안된다고 재배를 포기해서야, 비싸다고 우리것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것 ‘하나’를 지키는 일이 남의 것 ‘두개’를 차지하는 것 보다 더욱 값진 일입니다.